

중국 화학제품 공장 폭발사고

2월28일 폭발로 최소 12명 숨져 ... 의농약·화학제품 생산

중국 허베이(河北)의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.

중국광파망(廣播網)에 따르면, 2월28일 오전 9시경 중국 허베이(河北)의 스자좡(石家庄) 바이오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.

사고현장에서 유독가스가 계속 새어 나오는 데다 추가 폭발의 위험이 있어 구조대가 사고현장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목격자들에 따르면, 폭발사고가 난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훼손됐으며, 2km 이내 주변 가옥의 유리가 깨질 만큼 폭발의 위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.

사고가 난 공장은 농약과 의약품,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.

중국 소방당국은 구조작업과 함께 정확한 희생자 수를 파악하는 한편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29>